

학생회보

제 5호 위싱턴주 한국학생회 1973년 5월
SMITH HALL RM31, UofW





論壇

에너지의危機

이영재

요즘 갑자기 *energy* 자원의 부족에 대한 문제가 신문, 잡지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쓰고 있는 *energy* 원료로는 석탄, 석유, *natural gas*, 수력 그리고 원자력등을 들수있겠다. 이중에서도 현재 생활인의 필수품과 되어버린 자동차의 연료를 비롯해서 현대공업의 중요한 원료중의 하나인 *gasoline*의 부족이 갑자기 심각한 현실로써로 부족하기 시작한것이다. 생활의 발달에 따라서 문명의 이기가 향상되고, 이대우문의 문명의 이기들이 쟁취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energy*를 소모하게 된다. 어떤 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미국한 가정의 평균 *energy* 소모량을 전적으로 환산하면 300여명의 종을 가지고 있는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있다. 이런 *energy* 소모량은 급속으로 매년 증가하고, 인구 역시 늘어나는 형편이니 만일 *energy*원이 계속불충할 한없이 무한정으로 늘어나 하더라도 늘어나는 수요량 때문에 부족을 느낄터이니, 예를들어 석유 같은것은 자상이 매장되어있는 절대량은 한정되어 있고, 사용량이 형성되어지는양 보라 상상할수없는 전으로 많으므로 석유의 부족은 전부터 여러사람들이 의해서 경고 되어온바 있었다.

지금까지의 토론은 주로 전문가들의 국한 된것이였지만 흘러들어 오면서 우리는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다는 이념 미국에서 석유 매장량을 들먹일 정도로 실생활의 문제라 되어 버린것이다. 학자들의 의견이 달라서 각르는 하지만 자상이 매장된 양은 석유가 몇십년에서 무려 석탄이 백여년까지 장래에 사용할수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개발의 여지에 따라서 갑자기 남구에 현재는 상당할수도 없는 큰 유전이라도 발견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것이니 정확한 숫자에는 신명을 너무 쓸 필요가 없는지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 없어질것이라는 특히 석유는 버지 많은 장래에 다 없어질것이라는 사실만이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드려야 할것같다.

그렇다고 공포감에만 잠겨서 지낼필요는 없을것같다. 이러한 석유의 부족을 막기 위해서 1950년도 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원자력 *energy*의 사용인데 이것은 원자력 발전이라는 이야기가 알만 여중에게도 생소한말이 아닐정도로 발달된것이다. 지금까지는 원자력 *energy*를 단지 전기 *energy*로 바꾸어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업용 *energy*는 이로부터 공급되어 왔지만 아직도 전기 *energy*를 석유처럼 손쉽게 계속하고 운반할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교통수단에는 사용할수없는 실정이 되어 있다. 더군다나 부산물로 나오는 방사능의 처리문제와 사고시의 위험 문제를 아직도 완전히

허황하지 못한 상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석유가 있어서 권력량의 부족처럼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기술의 진척에 따라 언제나 그랬듯이 해결책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원자력 energy의 자원이란 우리들의 에너지량이 석유의 에너지량보다 더 풍부한 문제로 등장되어질 것이다.

우리들의 에너지량은 인류가 앞으로 몇 백년까지는 사용할수있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계산이나 변후한 여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energy 원 부족에 대한 공포감에 쌓일 필요는 없을것같다. 그 아픔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자핵융합 energy, 태양열, 간헐적차등 인간의 상상으로 그 한계를 상극 할수없을 정도의 많은 energy원이 사용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수 있겠다.

그렇다고 위에 적은것들이 기술적인 문제점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들은 아니다. 그러나 19세기 사람들이 원자력 energy는 상상을 하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것처럼 강력에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수없는 energy원을 개발하고 사용하게 될런지도 모른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상상할수있는 식물이 energy를 공급할수있는 원료는 무한정 하다고도 할수있다. 마치 우주의 크기를 한정이 있는 크기의 것이지만 무한히 늘어났다고 설명하듯이, energy원도 현재는 한정된 양으로 보이지만 기술의 개발에 따라 무한정 늘어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수 있을것이다.

그렇다고 인류가 두려움없이 현재 눈이 보이는 energy원을 남기려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energy원을 남기안 하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게을리하면, 마치 기은 가장이 남겨놓 유산안 남기하면 집안의 생계가 힘들어지듯이, 언젠가는 energy원의 부족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방비력과 게으름때문에 energy의 부족이 온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될것이다.

다시 말하면 energy원 부족때문에 인류사회에 어떤 위기가 오리라고 말하기 보다는 사회의 방비력과 게으름때문에 인간이 energy 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받게 될런지 모른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다. 그럼으로 한정된 물질의 양에 대한 공포심 보다는 무한히 개발할수있는 인간의 능력에 더 신뢰를 가지고 균형된 사회를 유지하는데 힘을쓰면 energy 위기 문제는 모든 문제를 처럼 무한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화공학과. 工博)





對 話

최 정 민

— 나의 슬픈 친구 K에게 —

먼 記憶이 크물 처럼 흐르다 멈춘 내 가슴에
갯빛 구름이 부서져 내리고
太陽을 잃어버린 하늘의 抗拒 같은 對話들이
저렇게 무척히 쏟아져 내리는데
글쎄 —

人生은 所有한 者보다 보고 있는 者의 所有이지만
定着을 告發당한 사람들의 허전한 웃음 같은 人生을
얘기 하다 보면

희망을 살리는 귀찮은 눈빛에서 우리는 人生을 배우고
그리고 그 人生을 배우기도 前에 다 살아버린, 人生을
다 살기도 前에 전부 알아버린 그러한 人生을 다 살고
배어갠 버린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는 그러한 眞實이라는 것이
있어서 좋다.

太古적 —

그러나 梨婦의 풍만한 육체를 유희하던 背嵬의 歷史는
人生의 가장 무거운 孤獨을 낳았고 그러한 인제 부끄러운지는
모르나 그 고독의 그늘 밑에서 우리는 죽음이리는 病과
同居한지 이미 오래지 않은가?

살아온 만큼의 人生에 대한 사람이 있어서 수많은
人生이 拒絶되어 왔지만 拒絶된 人生을 되찾아
길을 떠난 이들에게 조그마한 밤의 安息이라도 없었던들
그 밑에서 不幸한 일이 있었는지?

— 來日이 있어서 나는 오늘이 좋고
오늘이 있어서 이제를 살았다. —
밤이 또 오고
그리고 오늘이 지나가는데.

(수학리)

「今昔匣搨學」이오 리고 하기로 했다.
「今昔子」는 美洲本土人의 「웃소리」에
興味를 가지면 몇해 그쪽으로 VA-
CATION을 가고 冊 몇권 뒤집는 사이
에 「流水上善子」가 하늘을 훨훨
슬면 「金石下善子」의 배사창지를
다시 펴기 위하여 「政色承宣」영
에 設頭하여 自慰하기를 한다.

이번에는 「할망」을 찾아 小人도
그 수장은 DERACINE 族의 一人의 될
지 마음 먹음과 同時에 그러도 이
만큼 귀국을 故國의 조상이라도
공화국이 있는가 되지 않겠는가의
心惝에서 國會圖書館에 VACA-
TION 가기로 마음 먹고 있는 形便이다.
日帝時 그들의 秘密警察인 「特
高」가 얼마나 무서운 存在이었다는
것은 衆知의 事實이었는데 美國公
國書館 日本課·國立公文書館·
맥아리 記念館 등의 「特高」資料
三十五萬點이 있다는 事實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에는 「朝鮮人」
名士와 無名士의 지니기는 소리를
말한 不平·人相特徵·指紋·
筆蹟番號·交際者 등 살살이 記
載되어 있다고 듣고 있다. 헛기침
하니까 모든 記録은 된다는 이야
기이다. 今昔子의 調查焦點은
日本末期 「挺身隊」의 이름 아래
韓國 처녀 近 萬名을 軍隊公娼으로
徵發하여 大陸이나 太平洋島嶼
의 生地獄에 백여 농은 發案者가

누군가 하는데 있다. 이들은 敗戰과
함께 모든 資料를 불살라 버렸고
재빨리게 「本土」로 遁甲했다고
듣고 있는데 아직 살아 있다면 便安
히 다다미 위에서 죽게 할 것이겠는가
의 執念이 있다. 勿論 今昔匣搨學
이 小人의 副專功을 匡謬調해
한다. 祖文가 上海 韓人敎會牧師
이었던 관계로 韓人奸謀者들의 惡
毒스러운 暗躍에 村하여도 衷心이
깊다. 愛國者인 채 「臣高政」에
接近하여 中島謀略으로 침잠은
분들을 서로 머리를 싸매고 싸우게
하여 남치. 암살. 고문. 말살을 식은
죽 먹듯이 한 이들의 生理인 天皇
陛下를 위하여 마음속에서 激動
하고 自願하여 "배-지" 폭탄의
몸을 입고 散華하여간 그 수장은
韓人多徒兵의 心理인 比較
研究하는 설다. 알다시피 小人은
今昔匣搨學 권공이다. 마지막으로
最近 某誌에서 본 日本著名 中道
作家 司馬遼太郎의 史學者 萩
原延壽兩氏의 對談內容의 一部
를 소개 하면서 5회 畵이 이만 失禮
할까 한다.

<萩原> 原理 있는 相對便의 交渉
할 경우에는 어느정도 安心感이 있을다.
예측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이 特別
日本과 같이 原理가 없는 나라는 막대한
골목까지 꽃으면 안되지만. 이것은 귀족
의 一般原則이기도 한데만 (笑聲)
(7 페이지에 계속)

횡설 수설



이 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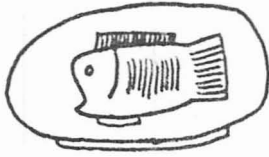
편을 들어본다. 무엇부터 적어야 할지
일기장 쓰듯하여 고향에 보내던 서신도
복사판이 되어버린 것은 오래전.

자금은 아예 소위수월이 무소식이란
수단만을 빌으며 살아가는 총각인생. 떠나
적지않은 고된 경험속에 학자금에 충당해오며
살아온 오늘날까지의 흐름은 갈기만 헛었다.
살림 도구라곤 Silverware 벗겨와
자동차 앵그로써 떠돌은 양재기 벗겨안이 팔랑
거려도 가끔은 총각준님 쟁에도 여러번려본
즐거움도 가져보았고 70년도를 大望의 해라
부르며 온씨는 선제이고 지금은 상상의 일로
작성에서 극악한 현실이 등을 밀려가며 사는
주제지만 파스한 용량의 아지랑이 따라 언저나
회상되곤하는 1971년도 West Coast를
따라 L.A 이까지 방랑 7개월동안 겪은
곳까지 경험과 이것의 생활상. 지금은
모 회사에서 나날을 끼로의 생활이 충실히
미주인 사회의 -員으로 일하지만 外柔内剛
의 근본이치를 깨달으며 하루하루를 살아
본다. 글씨라 아무는 개인적 사면이기에
써기에 짚을 價値는 별로 느끼지 않는다.
하나 유학 이람서도 反面이 많은것도 배워
온것같다. 미주인들의 시계조침처럼 유익
이든 가운데도 자기나름여로의 Humour를
만들기도 하면서. 살아전의 일이다.
Draftman 의 커라한 삶은 Engineer-
-ring Error로 바꿀수 있는 "저치"

언어의 풍류에서 오는지는 몰라도.
자그마치 Engineering이 전부 7년
을 더들라보니 You, Americans
would love to say
 $y = \int_0^s 2ax dx = 2a \left[\frac{1}{2} x^2 \right]_0^s$
 $= as^2 = ass$ 라과 적고싶다.
평범한 사람들이면 2년도 갈라하는 회사
확위자만 가계와 빌링이 3년을 쳐박려
군장을 띠리며 장삿이 서기만을 기다리며
말려나갈 날만을 기다려도 이런 가난
사연은 싶란다. 여기까지 이끌어 나가
보니 못내 떠벌이(?) 문턱도의 재치가
아쉽기도 하지만 그런여로의 공략도
무재주는 다 알겠기에 이런여로 우거지
주신의 횡설수설은 기년 幕을 내리는
기분이 든다.

(가계공학과)

(6 페이지 이후 계속)
반드시 도망할 길을 남기 놓아 죽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일 日本을 너무
쫓으면....
<司馬> 그러면 武力이지요.
<萩原> 日人에게 지금부터 原理를
가지리는 것은 原理의 注文으로
생각합니다. 日本에는 宗教的 伝統
뿐만 아니라 本래 原理를 놓을 만한
基盤이 있는 지요....
「金石下善子」도 「流水上善子」로
轉向하여 모든 善의 池이고 日本의
비나니 共和國의 株々 人人 致
富할것을 目下 公認중이다.



학생 부인 유감 ⑤

안 윤자

우리집 다섯쌍둥이 유치원어디는 망나를 비롯하여 아버지가 머슴이 학생이다. 그러나 학생의 아내로서 선아로서 有感은 이루 말할것 없고 遺憾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십여년전어 풀자아인 했지만 여학살생의 아내로 시작되었다가 이어받은 학생의 아내노릇도 이제 5년이 가까워 오는가보다. 사서하는 교생이나 노구한것 보다는 오히려 이런난관을 겪어낼수 있라는것을 자랑삼을수 밖에 없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꾸 커가기 때문에 아바공우풀나기까지 좀 기다려 말할수가 없어 고민이다. 큰아이는 Violin 둘째는 Piano 그러나 셋째는 저는 무얼 하느냐고 떠올랐다. 한국에서같이 된어놓고 부모의 목심반으로 강요시킬수도 없는 형편인데 학교에서 음악적성 테스트결과 소질이 있으니 사켜야겠라는 통지를 받고는 모르는척 할수가 없었다. 린이나 오케스트라 연습때문에 일주일에 다섯 여섯번은 운동수 노릇을 해야하며 아랫층에서 피아노소리나면 웃층에 올라가고 웃층에서 바이올린 소리나면 또 책을 보아들고 아랫층으로 쫓겨 내려와야하는 각박한 사정에서도 아바가 다가거히 받아주는걸 보면 참 자식이 소중한가보다 하는 생각이든다.

"아바 저척다워으면 졸업해? 그럼우리 한국가지?" 작년 어느날 책장을 가리키며 둘째가 물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우리 하와에서 놀다가 응?" 하고 조르는 것이었다. 날이 지나고 해가 바뀌는 동안에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갈꽃이 점점 더 무뎌어간다. 저희란 아이들 자기 한국은 아름다운곳이고 무엇이던지 다 제일이라는 image를 물어보며 그 아이들이 우리집에 와서 좀 이상하고 좋은것만 보면 이것도 한국에서 온 것이냐고 무러워 하는 것을 보면 어린 외근사할 노릇하고 있구나하는 대견한 느낌이든다. 하지만 앞으로 아이들에게 꿈과 현실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런지?

또 한가지 걱정은 집에서 우리앞을 유지하는데 권보라 사운(?)이 터싱해지는데 같다. 까딱하면 저희들끼리 생어를 해어느러 정할 권역이다. 물론 두가지 밧을 해야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부러가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어른과 아이들이 노력안하면 아무 불가능한일 같지는 않아서 애통스고 있는것이다. 우선 나의 신용치못한 평어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기때문에... 어쩌다보니 학생 영아 이야기만 했지 아내이야기는 없어진것 같다. 뒤늦게 다시 학교를 시작하여 식구들 고생시킨다는 불평을 하기전에 자기가 너무 애통스고 있는 것이 보기 어려워서가 한두번이 아니다. 자연히 풍우풀나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 즐겨 보리라는 희망보다는 나도 짜증이 났때면 실컷 바가지로 흠어물수있는 날이 오기만 고겨 하고있다. (유머식형의 부인)

◁ 이소식 저소식 ▷

강석호 형 겹치는 경사에
공주까지 와서 싱글벙글.

김남길 형 등남. 운동선수
의 이세이나 운동선수가 될 것은
명약관하.

박준부 형 New Jersey 에서
열린 회회에 참석하시었음.

지용희 형 서울 상대에서 가르
치시다 논문을 마치시기 위하여
장은 씨애들이 다시 오실.

임시주소: 4116 12th NE. # 308.

왕한철 형 이사하신 새
주소가 5030 17th NE. #10
Tel: 522-9970. (여자 18명
과 남자 2명이 사는 집).

유재건 형 박지용 형이
사시던 1720 NE. 923rd 로
이사. (Tel: 524-2395).

이기연 형 한국연극은 준비
하여 여흥방향중에 상연 예정
인데 출연 희망자는 ME2-5829
로 연락요망.

이양길 형 등녀. 첫딸이 새간
미천이라고 무척 좋아하심.

◁ 편 집 후 기 ▷



▲ 이능 편집실을 제공해 주신 권영길 형께 감사를 드린다.
매월 1일 배달되던 회보가 이번호는 사정에 의해서
며칠 늦어진것 (여러이 날과 어버이 날 중간이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과변을 넣어놓는 편집위원도 있긴
했지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 1월부터 시작한 본회보이 그간 고수한분, 학생부인 다섯분 그리고 23명
의 회원들이 귀한 글을 실어, 회보는 꾸며 주시었다. 그동안 여러가지 고마운
적려의 말씀과 귀지람으로 본회보를 키워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는 드리며,
더욱 많은 회보를 만들어 보려는 욕심에서 뒷면에 실문을 준비하였으나
여러분의 기려 없는 의견을 기대한다.

▲ 회보제작은 계속 이능 편집실에서 해기로 하였으나, 편집실을 제공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유 현 사장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편집실 제
공자이기는 평생 본보 구독권을 드키기로 한 사장의 방침을 재천명 하
면서).

귀하

새해 초부터 시작한 본 회보는 회원 여러분들의 분께 넘치는
성원과 격려 가운데서 이번 호로 제 5를 내기 되었습니다. 특정한 제호
는 정하지 못한채, 회보의 방향도 뚜렷이 국정을 짓지 못한채 다섯번째
작품을 내놓으며,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죄송함을 금치 못하
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고견을 받들어 회보의 방향도 잡아보고 질도
높여 보기 위한 저의 작은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문을 만들었
어요. 바쁘신 시간 활애하시어 귀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내주실 곳 : Korean Student Newsletter
c/o Mr. Jai K. Yoo
1720 NE. 92nd, Seattle, Wa. 98115

학생회보에 관한 설문.

1. 학생회보 라는 제호에 관하여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제호
로 만족 하십니까? 아니면, 추천 하려고 싶으신 다른 제호가 있으신지요?
2. 지금까지 대략 고정적으로 선정했던 난이 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1) 논단
 - (2) 전공순례
 - (3) 학생부인 위감
 - (4) 시, 수필 등 문예난
3. 추천 하시고 싶으신 새로운 난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4. 기타 본회보의 발전을 위한 귀하의 제언을 말씀해 주십시오.